

민
정
실

음
진
천

BUDDHANARA

우리는 햇불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역사를 밝힌다.



매주 일요일: 정기 법회 11시
 첫째주 일요일 11시 인등 기도 법회
 둘째주 일요일 11시 백중 (우란분절) 천도 기도 입재
 셋째주 일요일 11시 백중 (우란분절) 천도 기도 회향
 넷째주 일요일 11시 “부모 은중경” 독경 법회 (한글판)

불국사 콜롬비아 지역 법등 법회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 Buddha's Disciples Sun Meeting -

불국사 후원회 (불국회)

-법회는 한국에서 매달 있습니다. 한국에 계시면서 후원회
 법회 참가를 희망하시는 불자님 들은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나 한국에 있는 불국회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달의 법구경:

- 잘못 저지르면
 참회하여야 하고,
 참회 없으면
 눈물로
 쓴 결실 거두기 마련이네.

For that deed is not well done when being done one has to repent; and when one must
 reap with tears the bitter fruits of the wrong deed.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도 성취한다.

불국사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239-9068

2005 년은 부처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전법의 해”가 되도록 힘씁니다.

국제화시대의 불교

눈부신 교통 통신의 발달은 세계를 하나의 마을로 묶어 버렸다. 더구나 인터넷의 보급으로 이제 인류는 무한의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있어서는 ‘지구촌’이라는 말조차 무색할 정도이다. 따라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제 한국불교는 국제화의 물결 속에 휩싸이고 있다.

아직 학문적으로는 국제화, 세계화의 보편적 개념은 정립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불교가 세계불교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려면 선결해야 할 여러 가치기준들이 있다. 제일 먼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민족주의이다. 한국불교의 전통과 문화가 세계 제일이라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때 필요한 안목이 균형 감각이고 객관적 자세이다.

전통적으로 한국불교는 선교융합(禪敎融合)을 표방하여 왔다. 그러나 내막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선(禪) 우월적 사고에 젖어 있다. 따라서 선종의 입장에서 교학을 흡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보조국사 지눌스님의 사상경향에서부터 서산, 사명스님의 시대에 이르면 이 경향이 주류로 자리 잡게 된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형평감각을 잃은 판단이다. 언필칭 선(禪)이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敎)가 부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 결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한 관계는 아니잖는가.

사상의 흐름은 물결과 같아서 반드시 시대의 정신과 맥락을 같이한다. 일제때나 해방직후처럼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시점에서는 민족주의적 입장이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오늘의 세계화 물결 속에서 여전히 한국적 특수성에 집착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기 때문이다.

미래 한국불교의 과제는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를 불교적 공감대로 엮어가는 불사이다. 중국불교회장을 역임한 고(故) 조박초 선생은 한, 중, 일 세 나라를 ‘불교의 황금연대(Golden Belt)’라고 묘사하였다. 소모적 논쟁보다 생산적 관계로의 승화를 도모하려면, 불교문화라는 토대를 앞세워야 한다. 그 일을 수행할 본산 역시 한국이 적격이다. 이 동아시아의 불교연대가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 갈 이른바 ‘동북아시아시대’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불교신문: 정병조 교수

고희 맞은 달라이라마...티베트의 미래는...

47 개국 순방 티베트불교 세계화

티베트의 독립운동을 이끌며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는 달라이라마가 지난 6 일 70 회 생일을 맞았다. 1959 년 중국에 의해 티베트 정부가 침략을 당한 뒤 인도로 망명한 지 46 년이 지났다. 23 살 청년으로 히말라야를 넘었던 달라이라마는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우고 서방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티베트의 독립운동의 정당성을 알리고 있으나 중국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에 막혀 티베트 독립은 물론 자치까지 묘연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달라이라마에게 보내는 전 세계적인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어 티베트에 희망을 주고 있다. 달라이라마의 고회를 통해 티베트의 명과 암을 조명해 본다.

달라이라마 생일을 맞아 티베트 망명정부가 위치한 다람살라에서는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법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달라이라마는 “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티베트로 돌아갈 것이라고 기도했다”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티베트 영국사무소는 달라이라마의 ‘성스러운 생일’을 맞아 축하리셉션을 가졌다고 대대적으로 브리핑을 했다. 8 일자 보도자료를 낸 티베트 영국사무소는 “영국 국회의원, 외국 성직자, 공직자, 언론인, 다양한 NGO 대표인사들과 불교센터 관계자들이 달라이라마의 전기인 <유배된 자유를 넘어서> (freedom in exile)를 즐겨 읽었다”고 전했다. 스코틀랜드 국회대변인 스틸경은 “여러분들 가운데 그것(달라이라마 자서전)을 보지 못했다면 나는 강하게 명령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책 한 표지 한 표지에는 절대적인 매력이 있는데 1959 년 티베트로부터 망명과 모험, 달라이라마의 가족사 즉 유아기 때의 교육, 1989 년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스틸경은 리셉션 연설을 하면서 “중국정부가 항상 달라이라마의 초청에 대해 프레스를 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전했다.

영국뿐만 아니라 대만 천수이볜 총통도 달라이라마의 70 회 생일을 맞아 초청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서울 법륜사에서 고회를 맞아 모래만다라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도 대대적인 축하행사를 가졌다.

망명 46 년 동안 달라이라마는 방문한 나라만도 2000 년 기준으로만 파악해도 총 47 개국에 이른다. 이중 14 회에

달하는 미국이나, 9 회에 달하는 영국 등 여러 번을 방문한 나라도 많아 방문횟수로로는 훨씬 증가한다. 세계 각국을 방문하면서 달라이라마는 티베트 불교를 널리 전했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티베트불교가 서방에 전해진 불교 가운데 단연 제 1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달라이라마의 법문이 있으며 어떤 인기스타보다도 더 많은 청중들이 몰려 그의 영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 과정에서 티베트 불교는 미국사회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됐으며 리처드기어와 같은 할리우드 스타들도 불교에 귀의하기도 했다.

달라이라마의 개인적인 명성에 비해 그동안 노력해온 티베트의 독립운동은 여전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2002 년부터 달라이라마 특사를 구성해 티베트의 문제를 놓고 중국정부와 대화를 하고 있으나 협상의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 월 말에도 달라이라마 특사 3 명과 중국측은 스위스에서 회담을 가졌으나 양측은 자신들의 입장만 확인하는 정도였다.

최근 몇 년 간 티베트 망명정부는 중국에 “‘티베트의 진정한 자치’를 허용하면 망명정부의 귀향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으나 중국정부는 여기에 대한 응답없이 ‘하나의 중국’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측은 만약 티베트 망명정부가 말하는 자치를 허용하면 문화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티베트를 제어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결국 독립운동으로까지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달라이라마의 높은 명성과 티베트 독립의 묘연함이 교차되고 있는 가운데 46 년이 지나도록 망명의 설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티베트 민족들의 생활상도 점점 궁핍해지고 있다. 다람살라에 중심거점을 두고 있는 티베트 민족들은 북인도 라다크 지역과 마날리, 네팔 포카라, 카투만두 등 인도와 네팔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여자들이 나서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망명정부를 꾸리고 있는 다람살라에는 상층부의 생활과 일반 기층민의 차이가 심해 상대적 박탈감에 불만을 품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람살라 거주 티베트인은 “망명정부 고위층의 생활이 호화롭고 일부에서는 부를 축적하고 있어 일부 티베트 사람들은 오히려 중국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게 지금보다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대다수 티베트 민족들은 오랜 망명생활에서도 제 14 대 달라이라마가 20 년은 더 살면서 티베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하루빨리 망명생활이 청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티베트 총리 린포체는 최근 스위스 회담에 관한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중국과 진정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며 “달라이라마 생전에 자치문제의 해결책이 모색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달라이라마의 고령화로 티베트 망명정부의 힘이 약해지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불교에 대해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정부의 태도에 티베트인들은 귀향의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일이: 땀흘리며 하는 1080 배 수련회 현장...얼굴엔 환희심

일주일을 들어서기 무섭게 울어대던 초여름의 매미소리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선방의 죽비소리에 이내 잦아들었다. 지난 16 일 오전, 충북 보은 법주사의 일반부 1 차 수련회가 열리던 수련회 법당은 숨소리조차 근접하지 못할 만큼 고요했다. 참가자 21 명중 90%이상이 초심자들이었지만 수련회 3 일째를 맞는 수련생들의 참선 자세는 여느 선방의 구참 남자 못지않은 당당함이 묻어났다. 곳곳하게 세운 허리와 단전 앞으로 둥그렇게 말아 모은 수인(手印), 그리고 화두를 들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면벽불(面壁佛)이었다.

“딱! 딱! 딱!” 잠깐의 휴식시간이 끝이 나자 수련생 감찰을 맡은 습의사 선현(善現)스님의 눈빛이 다시 빛났다. 이내 찾아드는 고요. 20 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수련생들은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내면을 살찌우고 필요 없는 말을 줄일 수 있는가를 절감하고 있었다.

점심공양시간. 익숙하지 않은 발우공양이 어색하고, 음식찌꺼기 든 청수물 마시기가 아직은 두렵지만 발우 한번 굽지 않고 고분고분하다. “사찰 예절 배우고 참선, 묵언하는 것만이 수련의 전부가 아닙니다. 걷는 법, 먹는 법, 양말 빼는 법, 주위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법 모두가 수련입니다.” 습의사 스님의 격려에 수련생들의 굳었던 얼굴이 금세 환해졌다. 수련회 법당 뒷마루에 앉아 멀리 속리산의 짙은 녹음과 앞마당 수곽으로 흐르는 맑은 물소리에 곤혹스러운 잠이 쏟아질 무렵 끝맛 같은 30 분 휴식도 끝이 났다. 법주사 총무국장 스님의 오후 첫 강의 후 수련생들은 법주사 산내 암자인 복천암으로 순례 길에 올랐다.

전나무와 느릅나무 숲길 사이로 시원스럽게 뻗은 산책로를 차수(叉手)를 하며 걷는다. 이제는 발끝에 차이는 돌 한 조각도 다칠까 어느새 발걸음도 조심스러워 졌다. 폐부 깊숙이 밀려드는 신선한 공기와 났으면 사뿐히 뛰어 오르는 지면의 촉감이 즐거운 듯 간혹 몇몇 수련생들이 대오를 이탈해 발을 굴렀다. 이름모를 산새들의 지저귀, 길옆으로 흐르는 속리산 계곡의 싱그러운 물줄기 소리가 그대로 법문이 되었나 보다. 모두들 말이 없다.

휴가를 내자마자 수련회 신청을 했다는 정미영(42, 서울)씨는 산행의 즐거움을 “정신 스트레칭하는 기분”으로 표현하며

“어려운 점도 있지만 꼭 해볼 만한 행사라며 주변 이웃들에게 꼭 권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원에서 왔다는 오경세(68)씨도 “스님과 함께 지내면서 마치 속세를 떠난 출가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며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다음에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다음 수련회 참여도 약속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광찬(37, 서울)씨는 “종교에 관계없이 열린 마음으로 참여했는데 맑은 공기 속에서 진행되는 산사수련회가 너무 좋다”면서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모든 불행이 나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고 내면 성찰을 통해 나부터 변화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즐거워했다. 이씨는 특히 “사경(寫經)을 하며 한 글자 쓰기 위해 그렇게 많은 땀과 노력이 필요한줄 처음 알았다”면서 “다음에는 가족과 함께 오고 싶다”고도 말했다.

수련생들은 복천선원에서 큰스님 법문도 듣고, 자연에 묻혀있는 불교문화재도 살펴보고 수련회 100 배 즐거기를 실천했다. 수련회 자원봉사를 맡은 손유미(23, 충북대불교학생회장)씨는 “프로그램 마다 눈을 반짝이며 참여하는 수련생들의 진지한 모습에 신도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귀땀했다.

저녁 예불 후 시작된 1080 배 절하기 시간. 습의사 스님의 선창에 따라 발원문을 낭독했다. 개인적인 원을 세우고 1080 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라는 습의사 스님의 주문에 모두들 결의가 빛났다. 땀방울이 비 오듯 쏟아져 방석 앞 수건을 적셔도 ‘미륵존불’을 외는 목소리는 더욱 힘이 들어갔다. 대전에서 왔다는 윤종숙(48)씨는 “할 수 있을까 걱정했던 1080 배도 해내면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도 들었고요, 스님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습니다.”고 말했다. 윤씨는 1080 배를 “마라톤”에 비유하며 연신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수련생도 “방송에서 산사체험 하는 것 보고 왔는데 실제로 체험해보니 기대이상이다”며 “직장동료들과 같이 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도 했다. “법주사의 미륵부처님이 마당에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수행을 통해 드는 즐거움을 모든 이들에게 회향하라는 의미입니다. 늘 일상생활에서도 감사하고 회향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습의사 스님의 회향사에 모두들 합장했다. 수련회 마지막 날, 이제는 옆에 앉은 도반이 더 가족 같고 정겨워질 무렵 21 명의 수련생들은 수계식을 끝으로 3박 4일의 짧고도 아쉬운 ‘참나 찾기 수련회’를 뒤로 했다.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식구들도 한국에 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꼭 수련회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불자님들을 불국사로 연락 주시면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사찰에서 운영하시는 수련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은 어떤 분인가요

<질문> 보살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승경전을 독송할 때 마다 다양한 보살을 접하게 되는데 항상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렇게 보살이 많은 것인가요. 그리고 관음보살과 지장보살 등과 같이 우리들이 경배하는 보살들과 수행자의 모습으로 비치는 보살들은 어떤 관계인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소승불교의 아라한을 대신해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이상적인 수행자로 인식되게 됩니다. 보살의 어원은 범어 보디삿트바(bodhisattva)를 음에 따라 한역한 보리살타(菩提薩)를 줄인 말입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보면 보다는 각(覺)으로 한역하여 ‘깨달음’을 의미하며, 삿트바는 보통 한역 유정(有情)으로 ‘살아 있는 생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살은 ‘깨달음을 얻은 생명’ 혹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불전문학이나 대승경전 등에 나타나는 보살의 형태를 보면, 보살은 단순히 깨달음을 추구하는 생명을 넘어 ‘깨달음을 얻음이 확정된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승불교에는 두 분류의 보살이 존재합니다. 즉 중생의 이익을 위해 성불을 미루고 사바세계에 오신 관음, 지장, 문수, 보현보살 등과 같은 ‘보살마하살(菩薩摩訶薩, mahasattva)’과 대승교설에 따라 완전한 불성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범부의 보살’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두 분류의 보살을 구분 짓는지, 또한 왜 이러한 구분이 생긴 것일까요. 이는 보살개념의 기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보살은 기원전 1 세기경에 생겨난 것으로 후대의 불교도들이 이미 성불한 석존을 염두에 두며, 그의 전생을 탐구하여 생각한 이름이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전문학 중에 나타나는 ‘연등불수기(燃燈佛授記)’가 보살개념을 만든 핵심사상이라고 추정합니다. 이 유명한 연등불수기는 청년 수행자였던 석존이 연등불에게 미래세에 석가모니불이라는 붓다가 될 것이라는 수기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우 수기를 받아 성불이 확정된 석존을 다른 수행자와 구별시키기 위해 보살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파불교에서는 이 보살이 석존의 전생에 국한시켜 ‘석가보살’만이 보살로 칭하여 졌습니다.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붓다의 깨달음을 추구하며 보살행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살이라고 하여 포괄화된 보살사상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승경전에는 서원을 세워 완전한 불성을 증득하기 위해 지혜와 자비를 완성해 나가는 보살도를 닦는 보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 보살 중 서원이 원만히 성취되어 신통력을 가진 보살들이 방편(方便, upa-ya)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공덕을 중생에게 회향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미륵보살과 같이, 이들 보살들은

보살도를 수행해 가는 보살과는 달리, 다음 생에 성불의 단계에 있는 ‘일생보처(一生補處)의 보살’이라고 불리는 보살 중의 보살입니다. 이 보살들 중 지옥 중생을 돕기 위해 지옥에 간 지장보살과 천수천안으로 고통 받는 사바세계의 중생을 구제하는 관세음보살 등이 계십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살개념은 바라문교나 자이나교와 같은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불교 특유의 사상입니다. 석존이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 붓다(buddha) 즉 깨달은 사람이 되었는데, 깨달음으로 완전한 불성을 성취하려는 수행자를 보살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교가 얼마나 깨달음을 중요시하는 종교인가를 명확히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룻 밤에 읽는 불교〉에서 발췌

이달의 교리공부: 보살

보살은 여성인가, 남성인가를 궁금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초기불교에서는 여성을 보살로 보기를 꺼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인류 모두를 구제한다는 대승(大乘)의 입장에서 여성에게도 보살의 기회를 열었다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온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여성의 몸이 바뀌어 남성이 되는 이른바 전여성남(轉女成男)을 전제로 한 여성보살관(女性菩薩觀)이 그것이다.

우리가 얼핏 보살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까닭은 결작의 불교미술 때문이 아닌가 한다. 경주 토함산 주실(主室)벽에 릴리프 수법을 빌려 지은 세 체(體)의 보살상은 아름답기 그지없다. 본존을 깊이 바라보느라 실눈을 했지만, 눈매가 곱다. 매무시가 부드럽고 단아하거니와, 옷 속에 감추어 둔 몸매가 육감적이다. 그래서 돌로 지은 보살상이긴 하지만, 어여쁜 자태로 다가온다.

최근 불교신문과 월간 〈불교와 문화〉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여성의 종교인구가 남성에 비해 10%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통계를 내놓았다. 불교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성불자가 훨씬 많을 것이다. 오늘날 흔히 ‘보살’로 호칭하는 여성불자가 그들이다. 보살은 〈소품반야경〉 같은 경전에 보이는 선남자(善男子).선여자(善女子)와 별다름이 없다. 현대사회를 사는 여성불자로서의 보살이 바로 선여자인 것이다.

그러고 보면, 현대보살의 원력도 가볍지만은 않을 듯하다. 이 원력은 작은 것에도 착한 마음을 베푸는 보시바라밀(布施波羅密)을 빌려 얼마만큼 성취할 수도 있다. 이는 재가(在家) 보살의 종교적 실천 덕목(德目)이기도 한데, 크고 엄청난 일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 며칠 전 어느 학술회의서 주장한 한 학자의 말이 떠오른다. “조금이라도 남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꾸는 이가 행복하다”는 말이.... 이렇듯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것이 오늘날 보살의 길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요새 유행하는 어휘로 바꾸어 표현하면, 불가의 가르침과 맞아 떨어지는 보살적 웰빙이다. 오늘의 현대보살들도 이를 일상으로 끌어안아 모두가 석굴암 보살상처럼 어여빠지길 바란다.

사라지는 텃밭

산골 암자의 텃밭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그곳에 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새집이 들어서기도 한다.

세월이 변했고 자가용시대가 되어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옛 정취가 사라져 가는 것이 안타깝다. 사라지는 것이 정취만이 아니고 수행자가 지닐 정신마저 빼앗기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 그 정신이란 울력 때의 협동과 화합,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신성함, 손에 흙을 묻힘으로써 얻는 지혜를 이룸이다. 또한 자급자족의 정신과 근검절약의 정신도 있다.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一日不作 一日不食)이란 청규를 들먹이거나 선농일치(禪農一致: 참선수행과 농사는 하나)라 하여 수행자가 손수 경작하는 옛 어른의 모습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더라도 그 정신만은 잃지 말아야 할 것인데 요즘은 어떤지 걱정이다.

산골 암자의 텃밭은 사철 찬거리를 제공하는 부식(副食) 공급원이다. 상치 쫄갓 근대 호박잎 아욱 당근 등을 씨뿌려 거둘 수 있고 감자랑 무 배추는 물론이다. 공양간의 채공은 텃밭 덕분에 찬거리 걱정은 별로 하지 않았다. 암자 식구라야 10명 안팎이니 웬만한 텃밭이면 찬거리를 사러 장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들판에 벼가 무르익어 황금물결을 이루고 가을걷이를 기다릴 쫘이면 산골 암자 텃밭에서는 속이 팍 찬 김장배추가 찬서리를 맞는다. 배추 한포기를 썩 뽑아 걸잎을 대충 떼어내고 밀뿌리를 가르 다음 통배추를 사등분으로 썬 갈라 내놓으면 다른 반찬없이도 밥 한 그릇은 거뜬히 먹을 수 있다. 속잎 하나 뜯어내어 된장에 쿡 찍어 먹으면 배추맛은 입안에 단물을 넣은 듯 했다. 텃밭이 없어진 지금 그 맛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텃밭은 없애고 주차장이나 새 건물을 짓는다하여 어느 것이 얼마나 득(得)이 되고 실(失)이 되는지는 가늠하기에 따라 다른 것이다. 신도의 편리에 맞춰 찾길을 내고 주차장을 만들고 또한 집을 증축하는 것도 시대추세에 맞춘 것이리라. 그러나 정작 이해득실의 잣대는 수행정신을 지니느냐 잃느냐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법회소식 NEWS

- 양력 8월 19일 (음력 7월 15일)은 백중 (우란분절)입니다. 불국사에서는 양력 8월 14일 (음력 7월 10일) 부터 양력 8월 21일 (음력 7월 17일)까지 백중 (우란분절) 7일간 선망부보, 일가친척, 수자영가등 인연있는 모든 영가님들을 위한 기도를 봉행합니다.
우리 전통 명절인 백중. 우란분절은 신라와 고려시대부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참여하는 그야말로 성대한 날이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불교의 5대 명절중 하나로,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효행의 날이기도 합니다. 목련존자의 효심에서 비롯된 우란분절, 부처님께 공양올리고 정진하며 조상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날은 목련존자가 지옥에 빠져 고통 받는 어머니를 위해 덕이 수승한 스님들께 공양 올려 그 법력으로 해탈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 날로, 미혹에 사로잡혀 거꾸로 매달린 듯 고통 받으며 악도를 해매는 수많은 중생들을 해탈시키는 날입니다
우란분절에 보면 일년에 한번 백중날 지옥문이 열린다 합니다. 우란분절을 기려 저희 불국사에서는 지극한 믿음으로 효도를 실천하고자 살아 계신 부모님과 돌아가신 조상·친족 및 유자령(流子靈:유산된 태아의 영혼)영가 및 지난 일년간 알게 모르게 원결을 짓게된 모든 짐승 및 벌레 영가들도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7일 천도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공덕과 삼보의 공덕을 기리며 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면서 그 위신력을 빌어 중생이 지은 악업의 무거움을 구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란분절 천도제는 출가자의 수행 공덕과 보시자의 공양 공덕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 어떤 악업의 중생도 구제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전통 의식인 것입니다.
삶속에서 보살행을 실천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법사가 되어 널리 이웃에게도 선망조상 및 유주무주 고혼 영가천도의 귀중함을 권선 하시고 이웃과 함께 불사인연 나누시어 나와 내가 함께 성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어 그 인연 공덕으로 무량 복락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불국사와 인연있는 모든 신도님들은 빠짐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7일 기도 동참비는 \$50.00 (한국에서 동참하시는 분은 오만원 입니다.) 입니다만 경제 사정상 어려운 신도님들은 회장님이나 총무님과 상의 하셔서 기도비를 절충해 주십시오.
- 8월 첫째주 일요일에는 인등기도 법회가 있습니다. 인등 기도가 끝나고 점심공양후에 백중 7일 기도를 맞이하여 불기를 닦습니다. 복과 마음을 닦는다는 경건한 마음과 기도에 임한다는 마음으로 불기닦기 울력에 많은 신도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 7월 셋째주 교리 탐구 주제 발표는 월성 이우곤 거사님께서 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주제로 연구 발표해 주셨습니다. 7월에는 “녹차의 효능”를 주제로 발표해 주셨는데 왜 녹차를 복용해야 되고 녹차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건강상식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린트 자료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리 탐구는 신도님들 모두가 참가하는 장입니다. 모두들 유익하고 좋은 시간들 가지십시오.
- 7월 4째주 법회에는 몇몇 신도님들만이 참가한 가운데 자비수참 (108 대참회 기도 법회) 법회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이 세인트루이스에서 가장 더운날이 었지만 불타는 신심으로 8월에 있는 우란분절 (백중)을 맞이해서 대참회 기도 동참을 해주신 신도님들 소원성취 하십시오.
- 7월 신규 인등 기도 동참자: 171 번 정묘생 정지훈, 172 번 기사생 정지욱, 276 번 계묘생 김봉규, 277 번 병신생 강광석, 278 번 경자생 김종임, 279 번 계해생 강임준, 280 번 을축생 강혜진, 281 번 병신생 김중규, 282 번 경자생 박순자, 283 번 무진생 김우영, 284 번 경오생 김혜림.
인등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등기도는 매달 2째주 일요일에 있습니다. 인등 기도에 동참하신 불자님들은 꼭 법회에도 참석해 주십시오. 부득이한 사정으로 법회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집에서라도 마음과 몸을 정갈하게 갖고 기도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
- 현재 불국사에서는 지붕 불사를 합니다. 불사 동참을 원하시는 불자님들께서는 불국사 회장님이나 총무님, 또는 불국회 회장님 및 불국회두분 총무님께 연락 주십시오. - 성불하십시오. -
- 부다나라 템플(불국사)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불국사(BUDDHANARA TEMPLE)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불 합시다.